

Ernest Hemingway에 관한 研究

Part Three "A Farewell to Arms"

梁 相 翊

I

A Farewell to Arms (武器여 잘 있거라)는 Hemingway의 일곱 번째 作品이다. 그간 Three Stories and Ten Poems (1923), In Our Time (巴里版, 1924), in Our Times (美版, 1925) The Torrents of Spring (1926), The Sun Also Rises(1926), Men Without Women (1927)을 出刊한 바 있다.

上記한 作品中에서 一般적으로 이 作品은 The Sun Also Rises 다음 가는 代表作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나 Hemingway가 作家로서 그 位置를 確立하고 그 名聲을 讀者層에게 確保하였다는 意味에서 最初의 유일한 代表作으로 생각할 수 있다.

"A Farewell to Arms"는 1929年 9月 27日 Scribner 出版社에서 刊行된 것이다. 同年 5月부터 同年 9월에 걸쳐서 Scribner's Magazine에 連載된 것인데 Hemingway가 30歲 되던 해의 作品이다.

그 前年 3月 巴里에서 이 原稿를 쓰기 始作하여 그 後 巴里時代를 清算하여 本國으로 되돌아갔다. Florida州 最南端에 位置한 Keywest에 居住하였지만 Piggot, Arkansas, Kasas市 Missouri 等地에서 執筆하였다. 同年 8月 Wyoming 州 Sheridan 郡 Big Horn에서 脫稿하고, 그 뒤해 29年 봄에 巴里에 居住하면서 推稿에 推稿를 거듭한 끝에 6월에 겨우 完成하게 된 것이다.

"A Farewell to Arms"를 創作하게 된 動機는 1918年 7月 8日 야밤에 北部 伊太利 前線 Fossalta di Piave에 있어서의 豫期치 않았던 突發事件이라기보다는 瞬間的인 「生과 死」의 彷徨이며, 精神的 破壞와 同時에 그 再生이다. 精神的 破壞란 迫擊砲彈에 依한 負傷으로 戰爭에 對한 恐怖心을 불러 일으키게 한 「病든 魂」을 말한다. 그는 때때로 不眠症에 고민하여 一種의 不具者라고도 할 수 있는 主人公 (이른바 「The Sun Also Rises」의 Jake Barnes)가 되어서 登場한다. 再生이란 그 悲慘함과 魂의 슬픔을 克服하고, 그와 같은 悲慘 속에 휩싸인 歐羅巴, 即

「20世紀의 大地와 人間과 그 運命, 말하자면 그 宿命」과 對決함으로써 非情 속에 生活하였다 는 것과 또는 生活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언제나 「眞實을 爲하여 誠實할 것을 誓約한 이 作家 에 있어서는 그러한 體驗은 所重한 素材가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Romance로서 構成하게끔 誠實한 그의 魂에 捕捉된 것이다. 실로 10年間이나 간직하여 온 素材라 할 수 있다. 그 素材를 내걸고 不逞한 意欲과 不逞한 情熱로 一貫한 것이다. 反戰小說 惑은 厭戰小說 等類의 그러한 空虛한 것이 아니다. 있는 것은 戰爭과 戀愛와 Romance가 그 主流를 이루고 있지만, 그것은 直接的으로 「20世紀의 悲慘과 人間の 悲劇」이 連結된다. Hemingway 自身은 Hard-boiled의 呼稱을 否定하였다고 傳해져 있는 것도 作家의 보다 깊은 魂의 冒險을 皮相的으로 評價되는 것 을 두려워 하였기 때문이다.

II

「A Farewell to Arms」란 題目의 由來는 The Reader's Encyclopedia에서, 또는 Philip Young이 쓴 Ernest Hemingway (1952) 에서 說明되고 있는 바와 같이 George Peele (ed. 1558, ed. 1597)이 Elizabeth 女王에게 献上한 抒情詩의 題名에서 取한 것이다. 그 詩는 Peele이 벌써 戰爭에 參加할 수 없는 自身을 恨嘆하여 쓴 것이다.

Hemingway가 引用한 것은 오히려 反語的 使用이라고 Young은 補充 說明하고 있다. 負傷 當한 自身을 悲觀하는 Peele의 슬픔은 戰爭을 人間 生存의 宿命으로 여긴 悲嘆에도 不拘하고 그 悲嘆은 戰場을 脫却한 Henry의 運命과도 通한다. 그도 人間 生存의 宿命으로부터 離脫하지 못하고 戰爭과 戰爭의 갖는 모든 現實과 悲劇 밑에서 彷徨한다. 그도 負傷당하고 最後에는 運命的인 Catherine Barkley 와도 死別한다.

一般的으로 한 作品에 對한 理解에는 共通된 意見이 있을 수 있다. 所謂 定說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作品에는 그런 點이 있다. 素材로서는 「In Our Time」의 作品중에 있는 短篇 「A Very Short Story」의 主人公 「그」가 戰傷을 입고 伊太利의 陸軍病院에서 看護員과 戀愛를 하게 되지만 「그」는 美國으로 國歸함으로써이 戀愛는 끝장을 보는 Romance로 發展하게 된다. 思想的으로는 亦是 「In Our Time」, 中에 있는 Sketch 體의 短篇인데 負傷당한 Nick가 同僚인 Rinaldi에게 'You and me We've made a separate peace, not patriots'라고 증언거리는 虛無感에 接續하게 된다는 說明이다.

即 이 作品의 主人公 Henry가 既成 社會와 訣別하고 單獨講和를 締結하여 戰場을 離脫하여 Tagliamento 江에 뛰어 드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지만, 果然 그 行動에 虛無感이 있는지 與否는 分明치 않다. 오히려 그의 뇌리에는 Catherine을 항상 生의 象徴으로 여겼고 伊太利軍에 參戰하고 있었지만 伊太利人이 아니었으므로 容易하게 單獨講和도 할 수 있었고 또한 戰場 離

脫도 可能한 位置에 있던 者가 Henry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가 敢히 戰場을 離脫해야 하였던 「行動」과 「行動의 衝動 或은 原因 理由」를 우리는 探求할 必要가 있다. 結局 個人的 自由를 爲하여 살아 가려고 하는 不逞한 慾望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虛無感 같은 것은 여욕이나 없다. 次元의 生을 求하여 남은 것— 그러한 意味로서의 「既成社會」와 訣別한 것이다. 남은 것. 새로운 것 할 것 없이 人間的 生을 營爲하는 現實은 하나이다. 그는 最後에 虛無의 밑바닥을 徘徊하여야만 하였고, 次元의 生은 同時에 새로운 悲劇의 發生과 豫測이었다 할 것 같으면 그런 意味로서는 Tagliamento 江에 뛰어든 行動 一切가 空虛하게 된다. 또한 사람은 말하기를 “The Sun Also Rises에 登場한 主人公 Jake Bernes와 Brett Ashley의 前身이 바로 이 作品의 主人公 Henry와 Catherine이라 생각한다. 그 因果도 興味있는 것이다. Jake와 Henry는 다같이 戰場에서 負傷을 입는다. Ashley와 Catherine도 戰時에 男便 (Catherine은 約婚者)을 여의고 精神的 空白에 빠져 있을 무렵 陸軍病院에서 男子들과 사귀게 되는 것이다. 特志看護員으로서 勤務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두가 戰爭의 冷酷함을 몸소 體驗한다는 設定, 그것은 戰爭이란 쓰라림을 除外하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20世紀 人間的 病든 現實과 通한다. 아마 Lost Generation의 姿態를 奔忙 大膽한 Style로 抽出하면서 “The Sun Also Rises”에 登場하는 一群의 生態에 滿足할 수 없기 때문에 追求하여 마지않는 魂이 그가 熟知한 宿命의 戰場이로 Hemingway를 몰아놓아서 「20世紀의 運命」과 對決하게끔 이끌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 運命이야말로 悲劇인 것이다. 그는 그가 熟知한 바를 一切 投入시켜서 記錄한 것이다. 緊迫하고도 痛切한 作家의 鼓動이 緊密 簡潔한 Style로서 速력과 迫力에 豊富한 보기 드문 훌륭한 文章을 形成시키고 있다. 그것은 또한 Hard-boild Realism이라 말할 수 있다. Hemingway의 初期 代表作이라기보다는 長篇으로서 그의 最高 傑作이라고도 할 수 있다.

I

以上과 같은 理解 方法을 實際 作品中 登場人物의 行動을 通하여 보다 具體적으로 記述하여 본다.

全体 作品은 五部 四章으로 構成되어 있다. 第一部 第一章은 그 內容의 全部가 어두운 運命을 豫徵하듯이 緊張된 非情, 簡潔한 文章이다. 全篇의 主題가 이 짧은 文句 속에 숨어 있음을 우리는 操心性 있게 받아들일 必要가 있다. 모든 風景 自体가 象徴인 것이다.

Gorizia 戰線 後方의 風景이다. 季節은 늦은 여름이지만, 그 季節의 推移는 意外로 빨라서는 깜짝할 사이에 가을이 오고, 그 가을의 末期에는 慘澹하게 된다. 밤나무 잎사귀는 떨어지고 산이나 江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되며, 길은 너절해서 行軍하는 兵士나, 트럭도 흙투성이가 된다. 싱싱하였던 여름 風景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平和스러운 가을의 結實도 이제는

다 끝났다. 山地의 戰況도 매우 不利하게 되고 장마가 始作된다. 겨울이 되어서 cholera가 流行하게 되고 그로 因하여 多數의 兵士가 죽는다. 非情 冷徹한 文章은 그 悲慘狀을 only seven thousands란 表現을 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더욱 더한 悲劇과 그 豫感を 暗示하고 있는데 그런 程度까지 어두운 現實을 讀者들에게 呼訴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야기의 進展을 따라서 第二章에서 始作된다. 主人公 Frederick Henry는 伊太利에서 建築을 공부하고 있는 美國人이다. 伊太利語를 잘 驅使할 수 있고 伊太利軍에 參加하여 醫務隊所屬 中尉로서 Gorizia 戰線 後方에 있다. I라는 一人稱으로 말하는 Henry이다. 季節은 八月, 얼마 後 가을과 겨울에는 平穩裏에 해를 보낸다. 그 뒤에 봄에 新設된 英國 野戰病院의 特志 看護員인 Catherine Barkley를 同僚 Rinaldi 中尉의 紹介로 알게 되고 그녀와 遊戲的 戀愛를 始作한다. Catherine은 約婚中인 青年과 만날 수 있거나 없을가 하여 看護員을 志願한 것이지만, 그 青年은 前년에 戰死한다. 얼마후에 作戰이 벌어지고, Henry는 山地의 前線으로 나간다. 塹壕 속에 落되던 大型 迫擊砲彈을 맞고 重傷을 입는다. Milan에 있는 美陸軍病院으로 後送된다. 거기에는 野戰病院에서 轉屬된 Catherine이 勤務하고 있다.

第三部에서는 그 해 가을까지는 病院에서 平和스러운 風景이 繼續되고 그 間 두 사람 사이의 戀愛는 점차 純粹하게 轉換되어 간다. Catherine은 妊娠까지 하게 된다. 그런데 Henry는 復歸 命을 받아가지고 前線으로 復歸하여야 했다. 이와 같이 하여 戰爭에 支配되는 20世紀의 現實은 悲劇의 樣相을 항상 띄고 있는 것이다. 그 悲劇이란 人間哀歎이 항상 뒤따라야 할 因果 關係의 하나이기도 하다. Hemingway의 設定은 同時에 摘發인 것이다.

第三部는 有名한 Caporetto의 退却을 描寫한 文章이다. 戰況은 惡化되어 獨逸軍과 오스트리아軍은 北方 戰線을 突破한다. 그래서 前線으로부터 撤收命을 받고 最後에 Henry는 三臺의 醫務隊 車輛과 더불어 出發하지만 비와 어둠 속에서 撤收는 極度の 混亂을 招來하여 길 옆으로 墜落한 醫務隊車는 흙탕 속에 빠져서 움직이지도 못한다. 徒步로 가다가 運轉兵의 한 사람 Aymo는 友軍이 쏘는 銃彈에 맞아 죽고, Bonello는 逃亡처 버리고 Tagliamento 江을 渡江하였으나 Henry도 伊太利語의 方言 때문에 間諜으로 誤認받고 憲兵에게 逮捕된다. 領官級 以上の 將校가 거기에서는 部隊 離脫이란 理由로 차례차례로 銃殺된다. 이 危險을 알아차린 Henry는 機會를 엿보다가 脫走하여 Tagliamento 江에 뛰어든다. 간신히 득까지 到達하게 되고 때마침 徐行으로 오는 貨物列車에 뛰어 오른다. 이 行動을 所謂「既成社會」와의 訣別, Henry 自身の 再生으로 보는 것이지만, 그 再生이란 어떠한 意味의 再生인가. Henry는 모름지기 Catherine을 追跡하고, Catherine을 腦裡에서 描寫하여, 말하자면 Catherine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必死的이었다고 할 수 있다.

第四部에서는 Milan에서 貨物列車로부터 뛰어 내린 Henry가 陸軍病院에서 Catherine의 行方을 묻고 Stresa에서 무사히 再會한다. 거기에 있는 hotel에 滯在中 脫走者로서 逮捕되려고

하는 前夜에 湖上에서 boat를 타고, 비와 바람 속을 決死的으로 저어 나가서 간신히 Swiss에 到着한다. 그는 建築家로서 Winter Sports를 위하여 찾아 왔다고 假裝한다.

第五部는 幸福스러운 山間部落에서의 生活이 始作된다. 季節은 가을에서 겨울까지이다. 完全히 孤立된 두 사람만의 生活이지만, 결코 「既成社會」로부터 訣別하여 孤立된 것은 아니다. 또한 訣別함으로써 單獨講和가 이루어졌는지 與否는 알 수가 없다. Cafe의 新聞에는 正確하게 戰爭의 記事가 실려져 있었고 Henry는 그것을 보고 있다. 더욱이나 봄이 되어서 Lausanne의 病院에 入院한 Catherrine은 死兒를 낳고 自身도 出血에 依하여 死亡하게 된다.

Henry의 脫出과 訣別, 그리고 再生은 이와 같이 폐방된 解釋을 아니할 수 없고 單獨講和란 아무것도 없는 現實 속에서 Henry는 孤獨하게 지내야만 한 것이다. 살기 위하여서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虛無함을 간직한 채 살기 위한 「非情」을 頑固하게 이겨냄으로써, 그 모든 空虛함과 그 傷痕에 견디어 가려고 努力하는 한 人間이 最後에 있게 마련이다. 即 最後의 文章 「잠시 後에 나는 外出하여 病院을 떠나서 비가 오는 가운데 호텔까지 徒步로 되돌아갔다.」(after a while I went out and left the hospital and walked back to the hotel in the rain.)¹⁾

그 行動에 「非情한 생각」을 잠기면서 異常한 效果와 感動이 번쩍거리고 있는 것이다.

IV

以上과 같이 概要를 通觀하여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作品의 主題는 Henry와 Catherine 사이의 悲劇적인 戀愛이다. 그러기에 「Romeo와 Juliet」이라 하겠지만 도대체 戀愛란 悲劇적인 것일까? 無限한 幸福을 暗示하는 것일까? 그 本質적인 解明을 作家는 追求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對하여서는 作家의 說明을 引用하는 것이 一般的 傾向이다. 作家는 Death in the afternoon에서 「두 人間이 서로 사랑한다면, Happy Ending은 있을 수 없다」고 叙述하고 있는 것은 男女相愛의 슬픔을 指摘하기 爲한 것이다. 이것은 同時に 人間 信賴의 부르짚음이며, 人間 生存의 現實과 똑바로 對決하려고 하는 誠實한 魂의 告白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는 男女의 純粹한 사랑의 尊貴함을 믿기 때문에 그 슬픔을 癡視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人間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幸福할 수 없다. 男子든 女子든 간에 누군가가 먼저 죽지 않을 수 없고, 죽음으로 因하여 男女相愛의 實態는 無限한 終止符를 찍게 된다. 이것이 悲劇이 아니고 그 무엇일까. 그것을 悲劇이라 觀察할 程度로 作家의 呼吸은 銳敏하게 急迫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空虛한 가운데 人間은 항상 生存을 繼續하지 않으면 아니되기 때문이다. 그 空虛함은 20世紀의 現實을 特히 慘酷하게 規定짓고 있다. 戰爭과 戰禍를 말함이다. 戰爭이란 Hemingway로서는 다만 設定된 場圻에 不過하고 있는 것은 20世紀의 惡夢과 悲劇 뿐이다. 그리고 Henry와 Cather-

1) Scribner Library, p. 343

ine의戀愛이다. 同時에 그 現實과 苦痛과 虛無感이다. 모든 것이 惡夢인 것이다. 가지가지의 Hemingway의 소리가 있다. 예컨대, 「터무니 없는 戰爭은 어떻습니까?」하고 落伍者인 脫腸患者가 前線 假收容所에서 말을 던진다. 여기에서 Henry는 「섹었다」고 내뱉는다. 그런 즉 相對 方法도 놓칠새라 「정말입니다. 섰었어요, 完全히 섰었어요.」라는 투로 全然 關係가 없는 戰爭이라고 Henry는 생각하게 되고 Catherine 한테서 받은 聖 Antony를 가슴에 걸면서 戰爭을 잊어버린다. 現實的 業苦를 救하여 줄 神이란 있을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다.

"How yoh like this goddam war?"

"Rotten."

"I say it's rotten. Jesus Christ, I say it's rotton."

"Were you in the States?"

Sure. In Pittsburg. I knew you was an American."

"Don't I talk Italian good enough?"

"I knew you was an American all right."

"Another American," said the driver in Italian looking at the hernia man.

"Listen, lootenant. Do you have to take me to that regiment?"

"Yes."

"Because the captain doctor knew I had this rupture. I threw away the goddam truss so it would get bad and I wouldn't have to go to the line again."

I see.

"Couldn't you take me no place else?"

"If it was closer to the front I could take you to a first medical post. But back here you've got to have papers."

"If I go back they' ll make me get operated on and then they' ll put me in the line all the time."

I thought it over.

"You wouldn't want to go in the line all the time, would you?" he asked.

"No."

"Jesus christ, ain't this a godam war?"²⁾

自動車 運轉兵 Passini도 「國家를 支配하고 있는 階級이란 바보들이어서 아무 것도 모르고, 또 그들이 絶對 알아차릴 리 만무해,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戰爭을 치르고 있는 것이야」

2) *Idib.* P35-36.

라고 Henry에게 呼應하여 「戰爭을 치러서 돈이나 벌 수 있나? 그만큼 그 친구들은 어리석고, 그렇기 때문에 戰爭을 하는 거야.」 하고 말하지만 直後에 敵의 迫擊砲彈이 落下하여 重傷을 입고 戰死한다. Henry도 負傷을 입는다. 背反한 戰爭으로 因해서였다.

But even the peasants know better than to believe in a war. Everybody hates this war."

"There is a class that controls a country that is stupid and does not realize anything and never can. That is why we have this war."

"Also they make money out of it."

"Most of them dont'" said Passini. "They are too stupid. They do it for nothing. For stupidity."³⁾

全然 業苦로부터 人間을 救하는 神이란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 從軍牧師도 戰爭을 증오한다. 一線 收容所의 軍醫 少領도 「나쁜 데다 더 나쁘다.」한다. Rinaldi 中尉도 「도대체 어찌하여 이런 結果가 되었는가?」 殘忍無道한 나쁜 戰爭을 不平하지 않을 수 없다.

"All right," I said. "To hell with the whole damn business."

"No, no," said Rinaldi. "You can't do it. You can't do it. I say you can't do it. You're dry and you're empty and there's nothing else. There's nothing else I tell you. Not a damned thing. I know, when I stop working."

The priest shook his head. The orderly took away the stew dish.

"What are you eating meat for?" Rinaldi turned to the priest. "Don't you know it's Friday?"

"It's Thursday" the priest said.

"It's God-meat. It's dead Austrian. That's what you're eating."

"The white meat is from officers;" I said, completing the old joke.

Rinaldi laughed. He filled his glass.

"Don't mind me," he said. "I'm just a little crazy."

You ought to have a leave," the priest said.

The major shook his head at him. Rinaldi looked at the priest.

"You think I ought to have a leave?"

The major shook his head at the priest. Rinaldi was looking at the priest.⁴⁾

3) *Ibid.* p. 53.

4) *Ibid.* p. 180-181.

結果的으로 Henry는 「神聖. 榮光. 犧牲 그런 이야기며, 無益한 말투에 나는 언제나 唐慌하였다.」結局 犧牲이란 肉體를 埋藏할 뿐으로 Chicago의 屠殺場과 다를 바 없지 않는가 하고 辛辣하게 戰爭을 否定한다라기보다도 오히려 尊嚴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現實을 痛烈하게 批評한다.

I was always embarrassed by the words sacred, glorious, and sacrifice and the expression in vain. We had heard them, sometimes standing in the rain almost out of earshot, so that only the shouted words came through, and had read them, on proclamations that were slapped up by billposters over other proclamations, now for a long time, and I had seen nothing sacred, and the things that were glorious had no glory and the sacrifices were like the stockyards at Chicago if nothing was done with the meat except to bury it. There were many words that you could not stand to hear and finally only the names of places had dignity. Certain numbers were the same way and certain dates and these with the names of the places were all you could say and have them mean anything. Abstract words such as glory, honor, courage, or hallow were obscene beside the concrete names of villages, the numbers of roads, the names of rivers, the numbers of regiments and the dates. Gino was a patriot' so he said things that separated us sometimes, but he was also a fine boy and I understood his being a patriot. He was born one. He left with Peduzzi in the car to go back to Gorizia.⁵⁾

모든 것이 虛無한 것 뿐이다. Caporetto總撤退途上에서 兵士들이 말하는 것은 「將校를 죽여라」, 「平和萬歲」이다. 모든 空虛함을 脫却하고 Henry는 江 속으로 投身하고 再生을 願한다.

"It is you and such as you that have let the barbarians onto the sacred soil of the fatherland."

"It is because of treachery such as yours that we have lost the fruits of victory.

"Have you ever been in a retreat?" the lieutenant-colonel asked.

"Italy should never retreat."

We stood there in the rain and listened to this. We were facing the officers and the prisoner stood in front and a little to one side of us.

"If you are going to shoot me," the lieutenant-colonel said, "please shoot me at once without further questioning. The questioning is stupid." He made the sign of the cross. The officers spoke together. One wrote something on a pad of paper.

5) *Ibid.*, p. 191.

"Abandoned his troops, ordered to be shot'" he said.

Two carabinieri took the lieutenant-colonel to the river bank. He walked in the rain, an old man with his hat off, a carabinieri on either side. I did not watch them shoot him but I heard the shots. They were questioning some one else. This officer too was separated from his troops. He was not allowed to make an explanation. He cried when they read the sentence from the pad of paper, and they were questioning another when they shot him. They made a point of being intent on questioning the next man while the man who had been questioned before was being shot.⁶⁾

I looked at the carabinieri. They were looking at the newcomers. The others were looking at the colonel. I ducked down, pushed between two men, and ran for the river, my head down. I tripped at the edge and went in with a splash. The water was very cold and I stayed under as long as I could. I could feel the current swirl me and I stayed under until I thought I could never come up.⁷⁾

그러나 再生이란 어디서나 있을 수 없다. 戀愛 마찬가지로였다. 처음에는 카드놀이와도 같은 戀愛遊戲였다.

"And you don't have to say you love me. That's all over for a while." She stood up and put out her hand "Good-night."

I wanted to kiss her.

"No," she said. "I'm awfully tired."

"Kiss me, though," I said.

"I'm awfully tired, darling."

"Kiss me."

"Do you want to very much?"

"Yes."

We kissed and she broke away suddenly.⁸⁾

말하자면 그것이 (戀愛) 人間의 悲劇을 招來케 하는 陷阱인 것이다. 陷阱은 確實히 두 사람을 捕捉하고, 그 두 사람은 結合하게 된다. Catherine의 純粹愛는 露骨的이다. 그러기 때문에 純粹한 사랑의 破滅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Milan의 病院에서 지붕을 두드리는 暴雨 소리에 날

6) *Ibid.* p. 232.

7) *Ibid.* p. 233.

8) *Ibid.* p. 33.

라서, 그 어두운 風景의 裡面에 숨어있는 不吉한 것을 探索하려고 한다. 「자칫하다가 비에 맞아서 죽어 있는 自己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칫하면 당신이 비에 죽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하고 Catherine은 불쑥 말을 꺼낸다. 「아아 神이여 나같은 身勢는 없었으면 좋았었어요.」 하고 흐느껴 운다.

"It's all nonsense. It's only nonsense. I'm not afraid of the rain. I'm not afraid of the rain. Oh, oh, God, I wish I wasn't." She was crying. I comforted her and she stopped crying. But outside it kept on raining.⁹⁾

事實은 비에 놀란 것은 아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비에 맞아서 죽어 있는 모습을 想像한 것은 아니다. 놀람을 想像할 程度로 비는 空虛하게 힘차게 太古의부터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 悲劇的인 生에 놀라고, 그 空虛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人間이 人間에 對하여 또 露骨的인 生에 對하여 敏感하면 敏感할수록 언젠가는 終末을 告하여야 할 人間 生存에 對하여, 그 生의 因果에 對하여 恐怖感을 느끼는 것이다. 幸福이란 참으로 虛無한 瞬間的인 幻想이다. Henry도 화가날 程度로 그 陷穽을 意識하고 「生理的인 陷穽에 빠진 것이다」

"And you don't feel trapped?"

"Maybe a little. But not by you."

"I didn't mean by me. You mustn't be stupid. I meant trapped at all."

"You always feel trapped biologically."

She went away a long way without stirring or removing her hand.

"Always' isn't a pretty word."

"I'm sorry."

"It's all right. But you see I've never had a baby and I've never even loved any one. And I've tried to be the way you wanted and then you talk about always'."

"I could cut off my tongue," I offered.

"Oh, darling!" she came back from wherever she had been. "You mustn't mind me" We were both together again and the self-consciousness was gone. "We really are the same one and we mustn't misunderstand on purpose."¹⁰⁾

고 느끼는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宿命 때문에 그는 必死的이다. 再生을 願하여 Tagliamento 江에 뛰어 들었지만 陷穽은 完全히 두 사람을 질식시킨다. Catherine

9) *Ibid.* p. 132.

10) *Ibid.* p. 145.

은 우선 죽은 兒孩를 낳게 되고, 瞬間 Henry는 人間의 宿命的인 죽음의 그림자에 잠긴다. 그래서 Catherine도 死亡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 저기에서 彷徨하고, 人間은 早晚間 죽게 된다는 論理도 그는 생각하게 된다. 換言하면, 例컨대, 人間은 너무 많은 勇氣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人間을 이 世上은 辭讓없이 때려 잡는 것이다.

If people bring so much courage to this world the world has to kill them to break them, so of course it kills them. The world breaks every one and afterward many are strong at the broken places. But those that will not break it kills. It kills the very good and the very gentle and the very brave impartially. If you are none of these you can be sure it will kill you too but there will be no special hurry.¹¹⁾

異常한 生을 營爲하는 어떤 種類의 人間 宿命的인 鮮烈함을 作家는 叙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境遇에 있어서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人間이 있다. Henry를 Swiss에 誘引하고 再生을 決心한 Catherine이 바로 그것이다. 純愛를 爲하여 씩씩하게 살아가기 위한 勇氣를 가진 것이다. 하지만 그 勇氣 때문에 그녀는 確實히 最後에 죽게 된다. Henry는 불붙고 있는 봉나무에 기어다니는 개미떼를 바라다보면서, 그 개미떼가 한마리 한마리 불 속으로 떨어져 죽는 것을 世界의 終末로 생각한 일이 있다. 개미에게는 달리 取할 手段이 없었고, 그 개미를 救하려고 하였지만 아무런 効力도 없고, 이러한 「世界의 終末」과 通하는 「20世紀의 現實」에 그는 絶望한다. 神의 모습까지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믿을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人間의 모습 뿐이었다고 생각되고. 그 모습이란 空虛한 힘으로 非情에 견디어 내는 人間 行動 바로 그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적어도 Hemingway는 그 行動을 믿고 Henry를 病院에서 脫出케 하고 「非情」하게 비 속에서 Hotel로 걸어 가게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人間이 生을 믿으려고 하는 Hemingway의 最後의 必死的인 努力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는 軍牧에게 「神의 사랑」을 말하게 하고 健康한 山地에서의 平靜함을 傳하게 하여 人間生活의 훌륭함을 잊지 않는다.

There were many victories. The mountain that was beyond the valley and the hillside where the chestnut forest grew was captured and there were victories beyond the plain on the plateau to the south and we crossed the river in August and lived in a house in Gorizia that had a fountain and many thick shady trees in a walled garden and a wistaria vine purple on the side of the house.¹²⁾

11) *Ibid*, p. 258-259,

12) *Ibid*, p. 5.

"Not true?" asked the captain. "To-day I see priest with girls." "No," said the priest. The other officers were amused at the baiting.

"Priest not with girls," went on the captain. "Priest never with girls," he explained to me. He took my glass and filled it, looking at my eyes all the time, but not losing sight of the priest. 13)

Stresa의 호텔에서서는, 94歳の Court Greffi에게 '생은 매우愉快하다'고 말하게 한다.

"I hope you will be very fortunate and very happy and very, vary healthy."

Thank you. And I hope you will live forever."

Thank you. I have. And if you ever become devout pray for me if I am dead. I am asking several of my friends to do that. I had expected to become devout myself but it has not come." I thought he smiled sadly but I could not tell. He was so old and his face was very wrinkled, so that a smile used so many lines that all gradations were lost.

"I might become very devout," I said. "Anyway, I will pray for you."

"I had always expected to become devout. All my family died very devout. But somehow it does not come."

"It's too early."

"Maybe it is too late. Perhaps I have outlived my religious feeling."

"My own comes only at night."

"Then too you are in love. Do not forget that is a religious feeling."

"You believe so?" 14)

그리고 그 후에 Henry와 Catherine의 健康하고 平和스럽고 清潔하면서 爽快한 Swiss의 山地의 生活狀態를 描寫하고 있다. 作品은 하나의 悲劇이었으나 오히려 悲劇에서 悲劇으로 彷徨하는 執拗한 人間 行動에 對한 讚歌와 愛着을 그린 作品이라 할 수 있다. 적어도 Hemingway는 그 可能性을 믿는 것이다.

"A Farewell to Arms" 全体를 통한 弱點도 없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設定된 場所에서 設定된 人物로 되어 있는 것과 그 人物의 過去나 性格도 精密하게 描寫되지 못하고 모든 것이 行動에서 行動으로 移轉되는 것과 類型的 觀念的 幻影 같은 것이 叙述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行動을 取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러한 點이 20世紀에 있어서 하나의 小說의 宿命的, 即 Hemingway 文學의 特徵인 것이다.

13) *Idib.* p, 7.

14) *Idib.* p 272.

—Summary—

A Study on Ernest Hemingway

Part Three "A Farewell to Arms"

Yang Sang—ick

"A Farewell to Arms" is the seventh writing of Ernest Hemingway. The origin of the subject came from the name of subject of the lyrical poem which was presented to the Queen, Elizabeth by George Peele.

The whole work is composed of five books, forty one chapters. The opportunity for creative writing this work was the accident, which was entirely unexpected, at Fossalta di Piave, the front-line of life North Italy, on July, eighth 1918. It was momentary wandering of life and death, spiritual destruction, and restoration to life.

It is not a vacant anti-war novel, or pessimistic-war one, but the main current of war, love, and romance. It means the connection of the misery of 20 century to the tragedy of human being.

It is right that Edmund Wilson compares this work to "Romeo and Juliet" on the view point of the above mentioned.